월간 # 계란 소식지

2020년 10월 창간호



사단법인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CONTENTS

2020년 10월 **창간호**

발간사

03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

축사

04 농림축산식품부 박홍식 축산경영과장

05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축산물안전과장

06 (사)한국가금학회 김은집 회장

협회기고

08 생산자인 우리가 계란을 더 귀한 음식으로 만들어야 / 정수현 조인(주)

전문가 칼럼

10 양계산업의 사회적 책임 모두가 생각할 때/ 김재민 이사

산란계 수급과 동향

14 10월 산란계 수급과 동향

18 10월 집중관리

업체탐방

20 식용란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전문검사기관 ㈜씨티케이







발행일 2020년 10월 10일
발행인 전만중 발행처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10 아이에스비즈타워 지식산업센터 808호
전화 031-8027-6642
FAX 031-4335-5147
기획·편집 (주)인포아트커뮤니케이션
02-2269-5029
인쇄 삼원정판사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소식지 광고사 모집중

031-8027-6642

“협회에 명분과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

사단법인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입니다.

지난 2019년 창립한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1년여의 짧은 시간 동안 계란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작은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산업은 계란 관련 정책의 시행과 예고로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장기간 지속 중인 코로나19로 기존 유통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시장의 판도가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유통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이 아닌 강제에 의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행과 타성의 틀 안에 갇혀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점차 우리의 생계기반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변화를 재빨리 포착하고 끊임없이 대응할 수 있는 기민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의 요구입니다. 또한 산업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항력적이고 강제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모이고 결집하여 주십시오! 협회의 명분과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를 비롯한 협회 임원진들은 우리 협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모범적인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들께서 우리의 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그리고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모든 회원들께서 우리의 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그리고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홍식 축산경영과장



식용란선별포장협회 소식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애쓰신 협회장님과 관계자분들, 이 시간에도 계란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계란 가격 약세 장기화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계란시장은 ‘위생·안전한 계란’, ‘투명한 유통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0.05㎡/마리→0.075㎡), 농가와 상인 간 거래 공정화, 합리적인 시장 거래가격 형성과 수급 안정을 통한 농가 및 유통시장 관계자의 소득 안정 등 계란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입니다.

계란선별포장협회 소식지도 이러한 시대변화 속에서 우리 계란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안내해 주시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계란선별포장협회 소식지도 이러한 시대변화 속에서 우리 계란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안내해 주시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달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축산물안전과장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소식지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먹거리를 책임지고 달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써주신 전만중협회장님, 협회임원분들과 회원사분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식품 트렌드에 따르면,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는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해당 산업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달걀 산업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도입된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달걀이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지난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유통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별포장유통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와 회원사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선별포장제도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국민 기본 먹거리인 달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께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달걀이 제공되고, 달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도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민 기본 먹거리인 달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께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의 소식지 발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동 소식지가 식용란 선별포장업계의 소통의 장이 되고 더 나아가 달걀 산업 발전의 디딤돌로 자리매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란 유통에 하나의 시금석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사)한국가금학회 김은집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가금학회회장 김은집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어느덧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에 단 하나뿐인 (사)식용선별포장업협회에서 월간지 창간호를 맞았습니다. 전국 450여곳의 식용란선별포장업 관계자들이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서 창립한 단체인 (사)식용선별포장업협회에서 월간지를 발행하는 것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사)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계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커다란 이념 아래 식용란선별포장업 종사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며 생활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재개정하는 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설립된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저널로 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란 산업인의 알 권리와 식품 산업의 발전,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의 양계산업은 많은 변화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나 계란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세척란과 온도관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2017년 세척란 냉장유통이 의무화 되면서 계란 유통은 더욱더 큰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이런 혼란도 잠시 코로나 19상황 탓에 시설장비의 원활한 공급이 지연되면서 계란의 유통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월간지를 발행하여 계란 산업의 역사를 기록하고, 식품저널로 뿌리 내려 계란 유통에 하나의 시금석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단순히 계란의 소식을 알려주는 소식지를 넘어 식품저널로 시대적 요구에 앞서가기 위해 오프라인에만 머물지 않고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로 계란식품 정보를 전하고, 계란산업의 정보를 생산, 가공 그리고 유통업자가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면서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좋은 정보 소식지로 거듭나길 바래봅니다.

마지막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관련종사자들과 관계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정기 간행물인 “계란소식지”창간을 축하드리고 정부 및 계란 산업계를 대표하는 각계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를 대신 전합니다.



(사)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계란 소식지 창간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조합원님의 실익증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전충남양계농협이 되겠습니다.

조합장 **임상덕**외 임직원 일동

대전충남양계농협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4길 21(원성동) 전화 041)557-9711

본 점 041)557-9711~5 북부지점 041)551-8793~5 불 무 지 점 041)622-8900~1
두정역지점 041)555-3830~2 북일지점 041)562-4466~7 경제사업본부 041)555-7742~3

생산자인 우리가 계란을 더 귀한 음식으로 만들어야



정수현
농업회사법인 조인(주)
식용란선별포장협회
HACCP위원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조인㈜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정수현이라고 합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현장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지난 7월~8월 진행한 위생점검과 HACCP불시점검에 대응하시느라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품질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협회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통감합니다.
전 국민의 먹거리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음식의 재료로 사용되며, 비타민C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가 함유된 완전식품 계란. 어르신들께는 한때 집안의 가장 어른만 드실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고, 지금도 역시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계란을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정성가득 건강한 닭을 키워 알을 얻고, 이를 소비자에게 좋은 먹거리로 공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늘고 계란가격은 변동이 없어 힘든 상황

계란은 유통하는데 있어 기존 '도소매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계란의 위생관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2011년 4월 '식용란수집판매업' 이 신설되어 계란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신고를 하여야만 운영할 수 있고, HACCP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2012년도 1월1일부터 난각에 생산자명 표시가 시행되었고, 그 후에도 반복되는 계란의 위생관리문제로 점점 계란의 관리기준은 엄격해졌습니다. 2016년도 AI로 인한 계란가격파동, 2017년도 살충제 이슈, 2018년도 난각 산란일자 표기, 사육환경표기, 2019년도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허가 신설, 2020년도의 식용란이력제 시행까지 계란을 포장, 유통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몇 년간 단기간에 계란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아주 엄격해졌다 생각합니다.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또는 중복된 규제사항은 좀 정리를 하면서, 업체가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 시간과 정보제공이 충분했다면 이러한 혼란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규제에 따른 관리사항의 가중과 많은 시설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계란 값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법적사항을 준수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양계산업은 점점 힘들기만 하니, 규제는 더욱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초점을 바꿔 조금 더 소비자입장으로 계란을 바라봐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계란을 농산물이 아닌 식품으로 인지해야

정부의 모든 규제의 시작은 일부의 기본적인 위생기준 미준수로 시작되었습니다. 계란은 딱딱한 난각으로 내용물이 보호되기 때문에, 다른 식품에 비해 취급상 관리가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취급상 부주의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계란을 농산물이 아닌 식품으로 인지하셔야 합니다. 생산자인 우리가 계란을 더 귀한 음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 있어서 중점적인 관리사항은 선별포장 공정 중 식용란 세척공정과 식용란 보관공정의 법적사항 준수입니다.

식용란 보관기준은 가능한 한 0~15 ℃에 보관입니다. '가능한 한' 이기 때문에 농장에서 집란된 신선한 계란은 직사광선을 피해 온도관리가 가능한 창고에 보관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집란 혹은 포장할 때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물로 난각을 닦는다. 하면 이제 관리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계란을 물로 세척하는 경우 30 ℃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 ℃ 이상의 깨끗한 물(100~2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 함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로 세척하여야 하고, 세척한 달걀은 냉장으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0-4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4. 보존 및 유통기준)

물이 닿지 않는 브러쉬 세척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란은 기실과 수많은 기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숨을 쉬기 때문에 물이 닿았을 때 계란내부로의 이동이 용이하여 미생물 오염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해를 제어하기 위한 소독제의 사용과, 동시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냉장보관 기준입니다.

소독제의 사용은 무항생제인증 농가이거나, 무항생제인증제품을 취급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상 명시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무항생제인증기준에서 허용하는 물질은 과산화수소,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였다면 포장 후 식용란은 냉장(0~10 ℃)기준으로 보관, 유통하여야 하며 최종 판매처에서도 냉장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제품포장재 표시사항 전면에 '냉장' 이란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식용란은 법적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할 대상으로 원재료로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판매될 때에도 거래명세서에 식용란의 산란일, 세척방법, 냉장보관여부, 사육환경, 산란주령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최초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를 득할 때 자체위생관리기준 HACCP이 필수사항으로 운영내역을 제출하면 시도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이 개정되면서 2020.10.08. 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취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식용란선별포장업장도 대상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HACCP표준기준서를 참고하여 자사의 HACCP관리기준서를 점검하시고 내년 10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인증심사를 신청하고 심사받아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요관리점(CCP)의 모니터링 방법과 관리기준을 꼭 준수하시어 더욱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 귀한 식품을 생산하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 나가시길 기대합니다.



양계산업의 사회적 책임 모두가 생각할 때

김재민 이사
(농장에서 식탁까지 편집인)

요즘 축산업계 화두 중 하나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이야기이다.
최근 양돈연구회가 한돈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농특위에서도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에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부도 축산정책의 변화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 2020년 국정감사에서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가축질병 차단 및 환경부하 저감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공언하기도 했다. 축산업이 단순히 축산물 생산에 만족하지 않고 동물복지와 환경까지 고려하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이야기다.

축산업을 향한 사회적 요구의 변천사

축산업계를 향한 사회적 요구는 시대에 따라 점차 달라져 왔다.

식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1980년대까지는 축산물의 충분한 공급이 시대적 요구사항이었다.

어떻게든 농민들이 가축을 키워 많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했고, 유통구조개선, 축산물가격안정, 관련 인프라 건설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축산물을 가공하는 도축장과 육가공공장 등에 대한 시설현대화가 이뤄졌고, 축산물의 위해 물질 잔류기준이 처음 설정된 때도 1990년대다.

2000년대 들어서는 HACCP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어 축산물의 처리, 유통시설, 배합사료공장 그리고 축산농장까지 위해요소 관리기술이 접목되고 또한 정부가 이를 인증하는 사업도 병행되었다. 축산물의 충분한 공급이라는 사회적 요구에서 시작된 축산진흥정책은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위생 개념이 축산 전 분야에 정착되었다. 이외에도 1980년대 후반 양돈장 폐수문제, 2000년대 중반 양돈분뇨 해양투기 문제, 그리고 악취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축산업의 변화를 이끈 주체

이러한 변화는 축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축산물의 충분한 공급은 1960~1980년대 모든 국민들의 욕구가 있었기에 특별한 주체를 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한 욕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활동가들이 전면에 나섰다. 학계 그리고 소비자운동이 결합해 1990년대 굵직한 축산물 안전, 위생과 관련한 제



도 개선이 급격히 일어날 수 있었다. 축산환경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는 1980년대 급격한 축산업의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1970년대까지 농가들이 많은 수의 가축을 사육해 본 경험이 없어 농장이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농가도, 정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많은 분뇨와 폐수가 발생하는 양돈업의 경우 1980년대 환경에 많은 부담을 주었고 1990년대 오·폐수법이 제정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후 축산환경문제는 현재까지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축산업계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로 여기고 있다. 동물권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는 대규모 가축질병의 발병이 원인이 된다. 2000년 구제역이 처음 발병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번갈아 발병하며 가축의 대규모 살처분이 반복해 일어났고, 국민들은 많은 가축이 살처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불편해 했다. 가축질병, 살처분과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언론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연스럽게 언론과 동물권 단체의 연대가 2010년을 전후해 일반화 된다.

2000년대까지 소수에 불과했던 동물권 단체들은 2010년대 급격히 성장하면서 개의 식용문화를 사실상 퇴출시켰고, 산업동물에 대한 복지문제, 공장식축산의 문제를 계속해서 공론화 시키면서 정부도 산업 동물농장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 관행 축산농장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때 맛있는 축산물을 충분히 공급만 해줘도 소비자들은 만족했으나, 위생과 안전, 이제는 환경과 동물권까지 다양한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이 요구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수용에는 큰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와 함께 보상도 따라야 다양한 소비자들의 사회적 요구가 축산농장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이상의 사회적 책무는 소비자들의 요구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

> **사회적 책임이 소비자들을 향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함께 가축을 키우는 동업자들끼리도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 요구가 있다. 우선 적정한 사육두수를 유지하는 일이다.**

산업구성원을 위한 책임

사회적 책임이 소비자들을 향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함께 가축을 키우는 동업자들끼리도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 요구가 있다.

우선 적정한 사육두수를 유지하는 일이다. 양계업 그 중에서도 산란계 사육업은 2000년대 후반 그리고 2010년대를 지나면서 고도의 장치산업화 되면서 상시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본이 중심이 된 경제 체제라 하지만, 수요를 초과하는 무분별한 사육수수의 확대는 같은 산업 종사자들을 공멸의 길로 이끄는 무리수다. 축산업이 완전 자유화된 2000년 이후 축산농장은 주변의 민원만 없으면 누구나 할 수 있었고, 상상 이상의 규모로 축산농장을 건설할 수 있었다.

특히 사육 모든 과정이 자동화가 가능한 양계장은 2000년대 중반 5만수 정도 규모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2000년대 후반 20~30만수 규모의 양계장이 건설되더니 2010년대 들어서는 50~60만수 규모의 양계장이 심심치 않게 건설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메가 팜의 일반화는 한반도의 인구를 고려할 때 60만수 규모 양계장 100곳 정도로 구조 조정 되는 것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올 지경이 되었다. 이들 메가 팜의 문제는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농장이 생산비 이하로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면서 계란 가격의 회복은 난망한 상황이다. 강제적 수급조절 변수였던 조류인플루엔자도 2017년 이후 더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까지 농가들을 내몰고 있다. 이 모두가 동업자를 돌아보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낸 절망적 상황이다.



공장형 축산 비난, 사육 수수 감축 요구 거세

양계농장의 규모화는 동물권 운동단체의 좋은 먹잇감으로 산업을 내어주고 말았다.

동물권 단체들은 틈만 나면 A4용지 한 장도 닭들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며 양계 농가들을 무자비한 동물 학대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 살충제 계란 등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모든 게 공장식 사육시스템을 도입한 양계 농가들에게 원죄가 있다는 식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육 수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미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을 통해 지자체별로



축산업의 확장을 제약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축산농장의 확장에 따른 환경부하가 정점에 와있다는 것으로 단순히 규제를 몇 가지 조합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양분관리제, 양분총량제, 사육권, 할당제 등 여러 아이디어가 환경부, 환경단체, 농특위 등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지난여름에는 농특위 주최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은 이슈가 불거지면서 축산단체들이 거세가 반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양계농장의 규모화, 사육 수수의 증가는 이미 양계업계 내부에서 오랫동안 느끼고 있는 것들이어서 오히려 사육권이나 양분관리제와 같은 규제를 통해 사육 수수를 줄였으면 한다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산업 내외 사회적 요구 민감한 반응 필요

산업 내외에서 터져 나오는 양계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즉 목소리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산업을 옥죄고 있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규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도출되었을 때 긴밀히 대처하고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한 규제가 설정되기도 하고, 지금처럼 어떻게 하면 축산업을 축소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는 양계산업 내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계업계 내 인재들이 자신의 농장과 사업을 키우는데 집중할 뿐 산업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이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으면서 산업 발전을 위한 좋은 과제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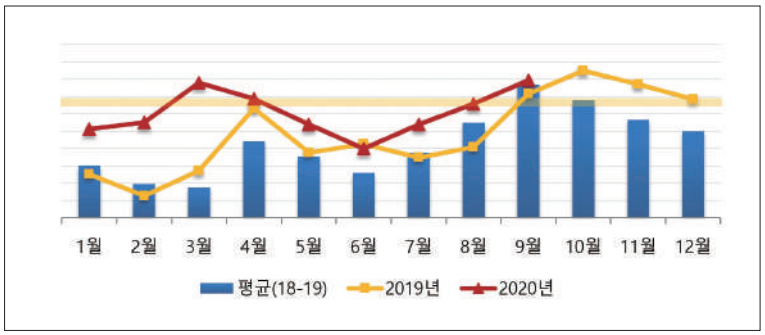
양계 농가의 수가 이제 1000 농가도 되지 않는 시대에 돌입했다. 소수의 농가가 주도하는 양계업계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프로패셔널이다. 많이 생산하고, 안전하게 생산만 하면 끝나는 시대를 이미 지난 지 오래다. 양계산업을 향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복잡다단해 졌고, 또 소비자뿐 아니라 내부 동업자의 생존을 위해 서로가 양보해야 할 것들도 산적해 있다. 외부의 사회적 요구 중 수용 가능한 것은 빠르게 수용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은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관리해 지켜낼 가치들은 지켜내야 한다.

더불어 대형양계장들은 동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수급조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찌 됐건 현재의 과잉 체계는 동업자를 생각지 않은 무리한 투자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대형 양계장들이 적극적으로 적정 사육 수수 설정 등의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0년 10월, 계란 생산량 증가 소비는 유지 또는 감소 예상

난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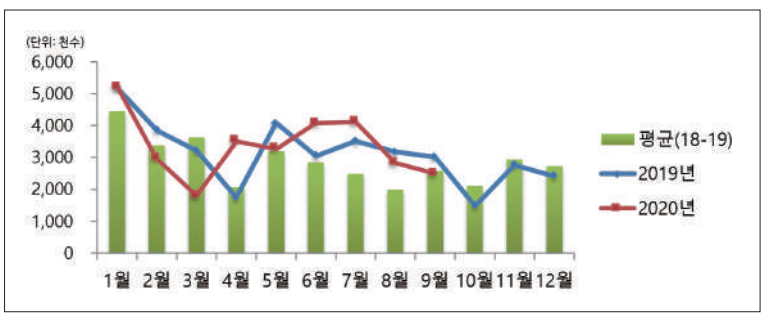
* 평균(18~19년) : 18~19년의 난가 평균
*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농가의 수취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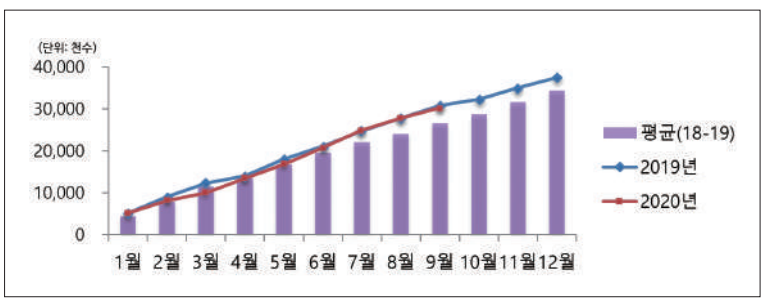
- 10월 계란 생산량이 증가하고, 소비는 유지 또는 감소 예상, 도태상황이 중요(양계연구)
- 8월 실적 기준 19년에 비해 **육추사료(92%), 산란사료(100%)**이며, 도태누적은 9월 (98.1%)로 **생산량이 증가 양상**으로 향후 노계도태가 감소할 경우 생산량 과잉 우려

산란도계도축실적

* 8월까지는 확정실적(검역본부), 단위(천수)
* 9월은 가통계 수치(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 9월 도태실적은 **19년대비 82.9%**로 감소, 18~19년 평균대비 96.6%으로 감소
- 8월 육추사료 누적실적은 **19년 대비 103.8%**으로 사육수수는 증가가 예상되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증가 상황이라 도태 상황에 따라 수급이 달라질 듯.



- 9월 노계도태 누적실적은 **19년대비 98.1%**로 도태를 적게 하는 경향
- 육추·산란사료 실적으로 보아 계란생산량이 19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증가로 인해 수급조절에 영향을 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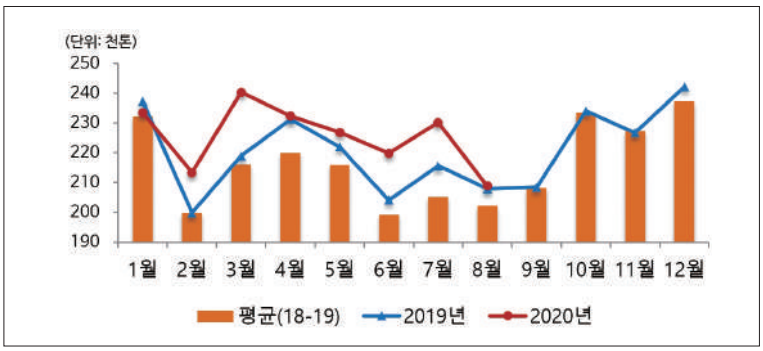
'20년 8월 19년 8월대비 산란사료 104%, 육추 104%, 병아리 107% 증감

사료생산실적

* 평균(18~19년) : 18~19년의 사료생산실적 평균(농림식품부)
* 육추사료 : 육추사료에서 육용종계 실적 제외(농림식품부)
* 어병사료 : 어린병아리 사료 실적(농림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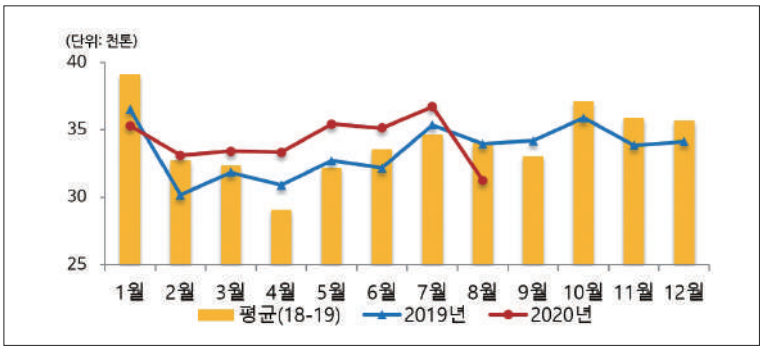
산란사료

- 8월 산란사료 생산은 19년 대비 **100%로 작년과 유사**, 18~19년 평균대비 **103.2%로 증가**
- 8월 산란사료 생산누적 실적은 19년 대비 **103.9%로 작년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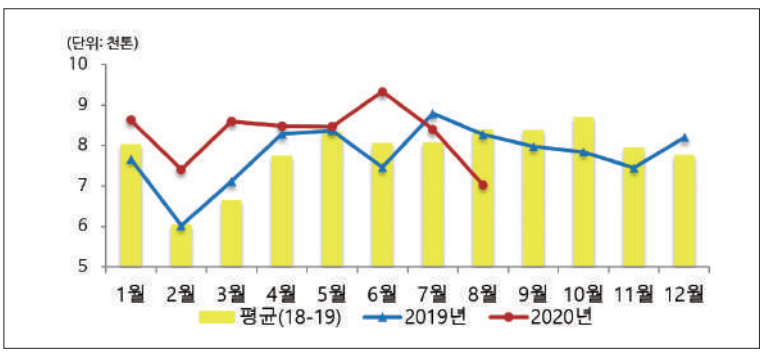
육추사료

- 8월 육추사료 생산실적은 19년 대비 **92%로 감소**, 18~19년 평균대비 **92%로 감소**
- 8월 육추사료 생산누적 실적은 19년 대비 **103.8%로 증가**, 18~19년대비 **102.2%로 증가**



병아리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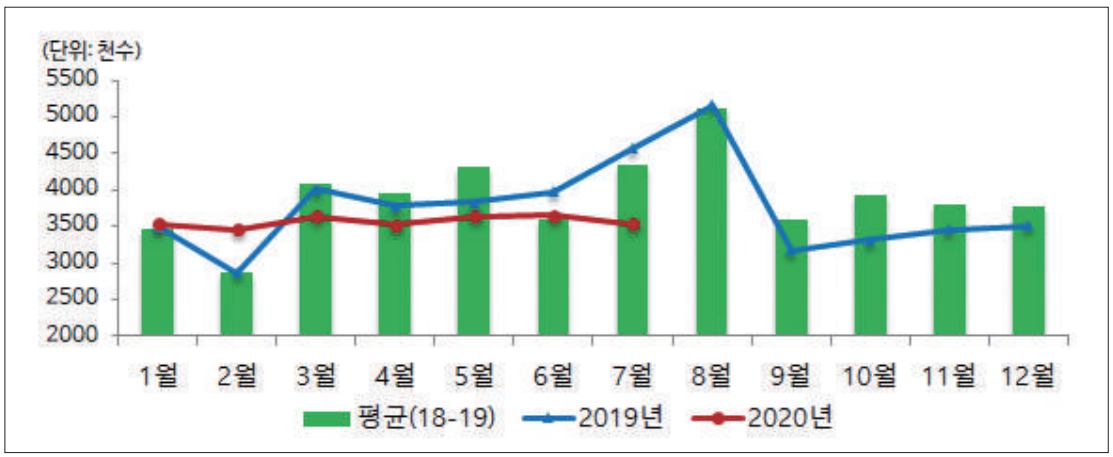
- 8월 병아리사료 생산실적은 19년 대비 **84.9%로 감소**, 18~19년 평균대비 **83.6%로 감소**
- 8월 병아리사료 생산누적실적은 19년 대비 **107%로 증가**, 이미 계란 생산에 신계군이 가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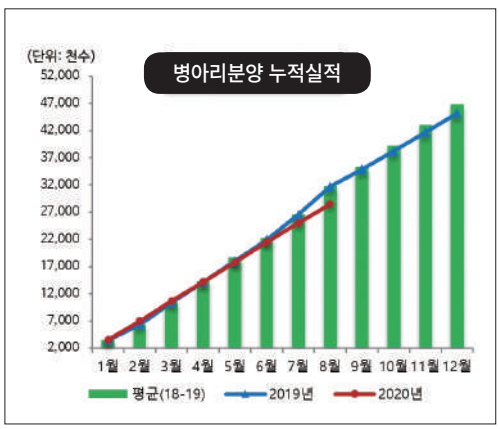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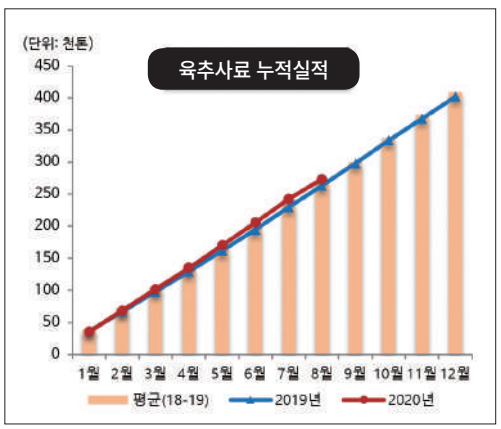
병아리분양 누적실적은 감소, 육추사료는 증가

병아리분양 실적

* 양계협회에서 발표한 월별 병아리분양 실적
* 평균(18~19) : 18 ~19년의 병아리분양실적 평균







- 양계협회의 8월 분양실적은 7월에 비해 감소하였고, 19년 대비 누적실적은 **89.9% 수준**
- 8월기준 병아리분양 누적실적은 19년 대비 감소하였다고 하나, **육추사료의 누적실적**은 **103.8%**로 19년대비 증가하였음

산란계전망



- 적극적인 산란성계육 출하로, 하락폭 둔화 시켜야 _ 월간 폴트리
- 6개월령 이상 계군은 지속증가세, 도축실적은 저조한 상황, 추가입식 자제·도태 등이 필요 _ 양계연구

산란계관련이슈

- 정책_케이지조사 및 사육밀도 점검(11/3일까지) : 0.05, 0.075 등 기준에 맞추어 사육수수 조정 필요
- 정책_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10/8일 부터) : 축산물 검사에서 잔류물질 위반시 농장 정보를 공개
- 정책_AI방역상활실 운영시기 변경 및 철새도래지축산차량 통제 : 기존 10월~2월에서 9월 ~ 2월로 변경 운영
- 정책_7/1일부터 계란이력제 시행, 12/31일까지 단속 유예
- 정책_식용란수집판매업, 자가품질검사(항생제, 농약) 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해야 함 : 가축위생시험소 검사 가능
- 정책_계란 살충제 및 항생제 검사 강화(8월까지 예정)
- 정책_동물용의약품(소독제,살충제,구충제 포함)의 기록의무화 : 구매기록이 1년간 보관되므로 인증농가는 주의(6/12)



성적관리

산란율

- 환절기 스트레스로 인한 산란율감소 또는 불안정 예상
- 호흡기질병, 장염, 지방간증 등 질병에 대한 관리 권장
- 난중이 증가하면서 산란율 감소하는 경우는 급이·급수사고 가능성

난중

- 난중이 증가하는 시기로 적절한 난중관리 중요
- 미환우 계군의 경우 63g이상인 경우 난중관리 권장
- 특히 미환우 계군이 65g이상인 경우는 오파란문제가 심할 수 있음
- 환우 계군은 급이개시 후 6주 이후에 67g이하로 관리되도록 권장
- 환우 전 난중이 65g이하로 관리, 환우 후 성적이 우수



질병관리

백신접종

- IB(QX형,한국호흡기형) 백신접종 : QX형을 4~6주 간격으로 접종하거나 한국호흡기형과 교대로 접종

진드기관리

- 10월까지는 진드기 구제가 매우 중요, 매주 모니터링
- 친환경제품, 물리적구제(규조토·실리카·오일) 권장

티푸스관리

- 10월까지는 진드기 밀도가 높고 티푸스 발생 우려
- 대책 5요소 : 백신/진드기·환기·음수관리·첨가제

장염관리

- 일교차스트레스, 저온 스트레스 등으로 장염 발생 위험
- 음수라인관리, 유기산제/생균제/에센셜오일 등

지방간증관리

- 섭취량 증가, 장염 등으로 영양불균형으로 발생 우려
- 간기능개선제(예, 카르니틴), ADE, 콜린 등이 효과



영양관리

급여관리

- 체중 1.9kg이상, 섭취량 115g이상인 경우 17.5%이하의 사료를 권장하며, 산란성적을 고려하여 사료 단계 변경
- 대체로 왕란이 20%이상인 경우는 CP 17%이하의 사료 권장
- 산란양이 54이하(예, 난중 65g, 산란율80%) 인 경우는 16% 수준의 사료 급여도 무방
- 반드시 체중, 섭취량, 산란양, 주령 등을 고려하여 사료교체

급수관리

- 음수라인 플러싱, 약품투여로 바이오필름 제거 및 억제
- 유기산제 또는 양조식초를 지속 투여하는 것은 수질관리에 도움

첨가제

- 기온변화, 일교차 등 스트레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타민제
- 스트레스로 인한 장염예방을 위한 생균제

※ 서울사료 자료제공

품질/환경경영시스템
ISO9001/14001

상품의 얼굴을 만드는 사람들



(주)한결팩키지

HANKYUL PACKAGE

계란포장관련 부자재 제조유통 전문기업

(주)한결팩키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565번길 12 TEL.031-332-3090 FAX.031-332-3560

식용란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전문검사기관 (주)씨티케이



1998년 8월 설립한 시험인증서비스 전문기업 씨티케이 (대표 임채광·형재성)가 작년 창립 20주년을 지나 현재 시험인증 분야 최고 전문가가 모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씨티케이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 중 하나이며, 창업 초기 전기안전시험이 전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다가 전자파 시험 분야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회사 전체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기안전 분야 사업 확장을 위해 가정용 에너지 효율, 조명기기 고효율, 배터리 안전 확인, 신뢰성 등 새로운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장 및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위한 시험소 기능 수행

특히, 씨티케이 기흥시험소에 있는 환경유해물질분석센터는 2005년 환경 분야 분석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소된 이래 분야별 전문 인력과 다양한 최신 시험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oHS),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폴리염화비페닐(PCBs),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 분석 서비스 분야에서 시작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전 분야를 검사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시험소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식품의 원천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정부 용역 과제 및

연구개발에도 참여함으로써 식품안전 관련 정책 형성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유해물질분석센터는 씨티케이 전체 매출의 30 %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임채광 대표이사가 진두지휘 하고 있습니다.

씨티케이 기흥시험소 환경유해물질분석센터의 주요 지정현황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즉석식품 판매 영업자의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위탁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HACCP 인증 및 준비업체의 위생품질 사후관리 검사와 제품의 영양성분 검사 및 유통기한 설정 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검사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PLS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473종 검사, 대만 및 일본, 홍콩 등에 수출하는 수출농산물,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잔류농약 320종 및 단성분 검사, 우수농산물관리(GAP) 및 HACCP 인증을 위한 잔류농약 검사 등 농축수산물 전반에 대하여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및 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정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검사기관으로도 지정받아 농축산물 검정 및 식용란 자가품질위탁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축산물 NRP에 이어 원유에 대한 NRP가 도입·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잔류물질 (잔류농약 및 항생물질 전계열)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인증 (유기인증 및 무항생제 인증) 획득과 관련하여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축분, 농지, 농자재(비료), 용수(하천수, 호소수, 먹는물) 중의 잔류농약 및 항생물질, 중금속, 무기성분,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식용란의 경우 유기인증 및 무항생제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각종 잔류물질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험검사비 60%까지 절감 가능

끝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씨티케이의 다양한 시험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험검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씨티케이는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연구기반 활용사업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에서 씨티케이와 같은 운영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전체 시험검사비의 약 60% 까지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업체의 경우 40%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씨티케이는 이러한 사업의 임원사 및 운영기관으므로 식품 및 축산 분야 여러 중소기업에게 비용 절감의 효과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고도화된 IT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각종 인터넷 언론 및 SNS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 안전과 관련된 문제나 각종 식품 유해물질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민감도가 매우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씨티케이는 이러한 경향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식품, 축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정확한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의 철저한 품질관리 및 안전한 위생관리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과 고객 간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품질향상 및 동반 성장, 긍극적으로는 건강한 식품안전 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씨티케이가 되겠습니다.







WAGU JET®

천후제일사료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줄 사료계의 효자손

이제 와구젯® 만 믿어요~



경제성 (Economic efficiency)

- 생산성 향상, 기회 이익 증대
- 예방 차원이나 빈도 증가 계절 사용 시 최소 4개월 사용 프로그램
- 중증도가 높고 와구모로 인한 생산성 기복이 큰 농장은 꾸준한 10개월 프로그램

안전성 (Safetiness)

- 천연식물성물질 사용으로 안전함
- 잔류, 휴약기간 없음
- 인체무해
- 계란 및 계육의 맛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친환경농장에 사용 가능

편리성 (Serviceability)

- 사료 급여만으로 와구모 관리 가능
- 방제를 위한 농도 조절, 방제 횟수, 방제스킬이 필요 없음
- 균일한 방제 가능

www.jeilfeed.co.kr

천후제일과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Hy-Line®

단단한 신뢰, 균일한 품질
봉산부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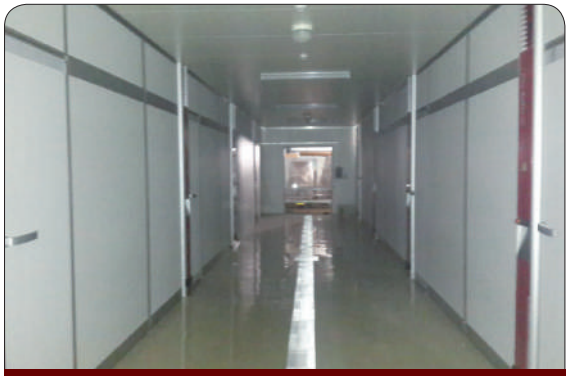
세계의 갈색산란계

하이라인® 브라운

봉산부화장



"최첨단 종계장"



"올인 올아웃" 스마트 부화기



건강한 병아리를 원하는 농장이
언제나 즐거워야 한다는
봉산부화장의 신념!
오늘도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봉산부화장 : 경북 영주시 조와로 172 전화 : 054-631-2858 팩스 : 054-633-6831